

#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공무원 문화교양지

2018.10

Vol. 509



## HARMONY

함께하며 같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  
다른 것을 포용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자.

#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청량한 가을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10월을 맞았습니다. 그 깨끗한 하늘처럼 내 마음을 잘 정돈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월간 <교정>이 부단히 하루를 걷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8년 10월호 (통권 509호) 62권 10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04 포토 이슈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참석 및 발표

### Colorful Think

- 06 Theme Column  
10월의 컬러, BROWN  
치달지 않고, 모두를 품다
- 08 Theme People  
표창원의 선택에는 언제나 '정의'가 있었다  
국회의원 표창원
- 12 Theme Talk  
인화단결, 단단히 또 깊이 새기다  
장흥교도소
- 16 Theme Advice  
사공이 많아도 온전히 바다로 향하도록



### Cheerful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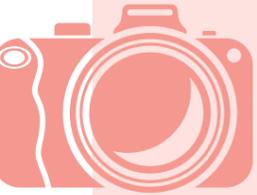
- 18 교정은 행복을 신고  
화려한 음악 만찬으로 힐링하다  
인천구치소
- 24 아빠! 어디가?  
새 가정을 꾸리는 딸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이평섭 가족
- 28 어느 멋진 날  
가을바람처럼 살랑였던 '멋진 하루'  
전주교도소 민원과 교정관 이병호, 교감 박은하·김석우, 교위 문종현·이용민
- 32 패밀리 프로젝트  
행복한 농촌에서 풍요로움을 수확하다 : 가족들과 농촌 체험하기
- 34 습관의 건강학  
당신의 장은 안녕하신가요
- 36 히어로 코믹스  
교정맨의 재등장에 환호하는 국민들
- 40 교정 인사이트  
언어의 심지에 불을 밝힐 때



### Correction Story

- 42 교정 글마당  
특별한 여정에 오르다 : 일본 후지산 등반을 마치고
- 44 교정 포커스  
교정공무원의 화합과 축제의 현장
- 48 교정 리포트  
교정조직 독립의 필요성과 과제(上)
- 54 지상강좌  
교정학
- 56 교정뉴스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 64 교정 스타그램  
화합을 담은 사진 열전
- 66 BOOK MARK  
'공감' 능력을 키워 주는 책들





# Photo Issue

9월, 교정부부의 활동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해외로 향해 많은 나라들과 '교정행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목소리를 냈다. 지금의 교정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했던 현장을 살펴보고자 하자.



## '아시아·태평양 교정부부장회의' 참석 및 발표

최강주 교정부부장 등 6명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교정부부장회의에 참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정행정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캐나다, 일본 등 24개 회원국이 참가하였다. '교정 분야 현안 및 시도'를제의제로 놓고 전체 회의를 진행했으며, '극단주의, 테러리즘, 조직범죄 관련 수용자의 관리, 교화 및 사회재통합 관련한 우수 사례',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수용자에 대한 예방, 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각 의제로 설정하여 소회의를 실시하였다. 대표단은 전체 회의 및 소회에 참석하며 각 현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체 회의에서는 '교정부부의 일반현황 및 수용자 심리치료, 원격의료센터,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하였으며, 제5세션 소회에서는 '교정심리검사, 교정재범예측지표, 고위험 범죄 위험성 평가척도 및 분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대표단은 이를 통해 한국 교정행정을 홍보하고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 • BROWN

10월의 컬러

## 치닫지 않고, 모두를 품다

흙은 모든 생명을 피어나게 한다. 또한 숨이 끊어진 생명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 흙은 살아 숨 쉬는 것들의 고향이고, 그릇이고, 집이며, 회귀해야 할 무덤이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하는 흙. 우리가 사는 대지를 덮고 있으면서 세상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흙은, 바로 브라운을 띠고 있다.

###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색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비유를 우리는 즐겨 쓰곤 한다. 실제로 시신은 130년이 지난 후에 진토가 되므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고대 철학자인 헤시오도스는 흙을 만물의 근원, 즉 원소라고 여겼으며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에서는 흙을 세상의 구성물질이라고 보기도 했다. 굳이 이와 같은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흙이 세상과 생명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흙을 대표하는 색상이 곧 브라운이다. 무채색은 아니지만, 화려하지 않고 극적이지 않은 브라운은 흙의 속성처럼 어디에서든 머무른다. 자연에서도, 사람에게서도, 그리고 우리가 건축하는 집에서도 브라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단지 친숙하던 이유만으로 브라운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의 보색이 섞여 만들어지는 중성 컬러인 브라운은 어떤 감정으로도 치닫는 법이 없다. 가운데에 서서 좌우에 놓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품어내기에 일상으로 잔잔히 스며든다.

### 브라운, 컬러들의 개성을 묶다

브라운은 모든 컬러의 혼합물이다. 레드와 그린을, 퍼플과 옐로우를, 그리고 블루와 오렌지를 섞어도 브라운이 나온다. 레드와 옐로우, 블루를 섞어도 다르지 않다. 어떠한 컬러가 혼합이 되어도 브라운이 나온다는 사실은, 브라운이 다른 컬러들을 한 데 묶는 공통 요소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브라운은 그런 방식으로 다른 컬러와 구별되는 고유한 상징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브라운은 또한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의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종이는 오래되면 누렇게 변하고 결국은 브라운이 된다. 목재와 가죽도 오래될수록 브라운으로 짙어지며, 먼지와 때 역시 세월이 흐를수록 브라운의 층 위로 켜켜이 쌓인다. 브라운은 시간을 함축하고, 시간을 드러낸다.

오늘날 우리는 화합을 뒤로 한 채 살아가고 있다. 개인이 가진 개성이 더 도드라지고, 남과 섞이지 않으려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그 역시 나름의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를 구성해 살아가고 있기에 화합의 가치를 잊어갈수록, 다시금 상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떠한 컬러가 섞여도 도출되는 브라운처럼, 우리 역시 하나의 목표에 뜻을 모으고 함께해보는 것은 어떨까. 빠른 시간 안에 성과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 깨알 지식

#### 'about BROWN'

보통 맥주병이나 자양강장제의 병, 화학약품의 시약병 등은 대체로 '브라운'을 띤다. 이는 '브라운'의 자외선 차단율이 높아 병 안에 든 천연 원료를 상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분자 간의 결합을 끊을 정도의 에너지는 대략 근자외선에 해당하는데 이 파장을 흡수하는 색상이 브라운이다.



국회의원  
**표창원**

설록 흠즈를 꿈꾸던 정의로운 소년은 '정의'를 지키는 경찰이 되었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어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변해왔지만, 그의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정의'가 있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표창원의 이야기다.

## 표창원의 선택에는 언제나 '정의'가 있었다

### 정의는 때때로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온다

2015년 12월 26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기에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10가지 이유를 진솔하게 써 내려갔다.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였다.

“그동안 전 경찰관, 교수 그리고 방송인과 작가로 ‘정의’를 말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주장과 방안들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 내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범죄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그리고 권력적 부패와 비리를 ‘정의의 적들’로 규정하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정치’를 통해 실제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정의가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자신을 정치에 직접 나서게 했다는 표창원 의원. “한 번 제 모든 것을 바쳐 도전해 보겠다”는 문장에는 ‘무너진 정의’에 대한 그의 절박함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경찰대 교수직을 사직했을 때에도, 2013년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진행하던 시사 프로그램의 하차를 결정했을 때에도 ‘정치인’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전 정치인이 아니며, 아니고자 합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치를 하게 된다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되는 표창원 의원의 글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6년, 표창원은 대한민국의 제20대 국회의원(용인시 정)에 당선됐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던 표창원 개인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은 국회

의원 표창원을 통해 천천히 실현되어 가는 중이다. “정의는 때때로 아주 짓궂은 정도로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표창원 의원의 신념처럼 말이다.

### 청년 표창원, 설록 흠즈를 꿈꾸다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그를 응원하는 대중과의 약속을 내려놓으면서 선택한 정치인의 길. 그 선택의 중심이 된 ‘정의’는 그가 경찰의 길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표창원은 정의로운 소년이었다. ‘이소룡’의 영화에 심취했던 소년은 불의에 대항한다는 명목하에 주먹다짐도 마다하지 않았고, 패싸움에 휘말려 정신을 잃은 채 양호실에서 깨어나기도 했다.

소년을 어른으로 성장시킨 건 추리소설 ‘설록 흠즈’였다. 불합리한 사건을 폭력이 아닌 명석한 추리로 해결하는 설록 흠즈를 통해, ‘저항과 반항’이 아닌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법을 배웠다. “정의는 권위나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규율과 합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도 어렵잖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설록 흠즈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는 소년의 꿈은 그를 경찰대로 이끌었다.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한 대학 생활. 그러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은 생각했던 것보다 처절했다. 또래 대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외칠 때 경찰은 이들과 맞서 시위를 진압해야 했다. 1987년 1월에 발생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지켜보며 ‘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의무와 사회 정의’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했다. 그 시절 고뇌의 시간은 “정의는 때때로 아주 짓궂은 정도로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그의 신념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의 경찰이 된 표창원 의원은 ‘드디어 범죄와 맞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 1990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에 위치한 기동대 2소대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운명이라 생각했다. 대학 때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낼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있었다.

“기동대 소대장의 신분으로는 수사 참여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했죠. 지금도 안타까운 건, 대통령을 포함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매뉴얼은 무시된 채 증거 보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죠.”

책임과 추궁이 두려워 사건을 은폐하고, 실적과 공로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 현장. 결국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고, 열정과 소신만으로는 ‘정의’를 지켜낼 수 없다는 깨달음은 범죄수사기법 연구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표창원 의원이 영국 유학길을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실무 경험과 유학 시절 배우고 익힌 이론적 배경은 표창원을 국내 최고의 범죄수사 전문가로 우뚝 서게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TV 프로그램에서 미제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범죄 해결과 예방에 앞장섰다. 제복을 벗은 후에는 경찰대 교수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정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그의 변함없는 신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찰이자 가장 빠르게 수감 신청이 마감되는 교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 수사기법의 기틀을 마련한 국내 1호 경찰학 박사를 거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표창원 의원.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변해왔지만, ‘세상에 정의를 심기 위한 표창원의 선택’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보 역시 그의 오랜 신념과 결을 같이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책임감의 무게는 더욱 묵직해졌다. 당선 직후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들의 권익향상, 근무조건,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가장 먼저 우선하겠다”는 공약도 진행 중에 있다.

“국회 입성 후 안전행전위원회에 배속되면서 일선의 교정 보호관찰·경찰·소방 공무원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적해왔습니다. 순직 공상처리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고,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법무부의 정책 방향이 교정과 보호관찰로 차츰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입법이 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일선에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아직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낸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정의를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 수사와 교정교화의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교정과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을 터. 표창원 의원은 무엇보다 교정청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 발로 뛰는 교정공무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 것이며,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문제의 해결 방안 역시 교정의 원칙, 현장의 특성과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교정의 이론을 배우고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시로 그 이론과 소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범죄를 저지른 이들과 24시간을 함께하며 그들을 교정 교화하는 일은 분명 이론과는 다를 테니까요. 수용자들의 도발과 위협한 상황, 그 특수한 환경에서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교정공무원의 전문성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공무원들이 소신을 잃지 않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원, 정부의 역할일 테고요.”

표창원 의원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 형벌 제도의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교정과 형사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범죄의 원인이나 형태에 따른 교화 과정과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격리가 꼭 필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격리 후 범죄에 따른 교정교화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양한 보호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죄질이나 범죄의 원인에 상관없이 격리 수용되다 보니, 교정 당국은 인원과 예산 부족, 과밀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한된 인원이 과밀된 수용자들을 사고 없이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 된 거죠. 반대로 격리 수용 되어야 할 악질 범죄자들은 돈과 권력을 앞세워 벌금형 집행유예로 나오는 형평성의 문제도 끊임없이 대두되고요. 대한민국이 어떤 형벌 철학의 재정립, 그리고 교정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형벌 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은 여전히 한국의 설록 흠즈를 꿈꾼다. 범죄 수사 현장이 아닌 국회로 활동 무대가 옮겨졌고,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대신 더 나은 현장을 위한 제도와 법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지만 말이다. 여전히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결코 그 옳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익을 위해서 틀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정의의 편에 서는 설록 흠즈를 꿈꾸는 표창원 의원. 그의 목표는 단순하다. 내가 있음으로써 조금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

“각자가 자신의 맘과 노력의 대가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축하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몫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전하는 교정의 날(10월 28일) 축하 인사**

교정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교정과 교정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누리시는 일상의 평안과 행복,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교정공무원들의 맘과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노도 느껴지시겠지만, 저처럼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을 알고 감사해하는 국민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 인화단결, 단단히 또 깊이 새기다

## 장흥교도소

단결은 힘이다. 고대 그리스 최대의 서사 시인인 호메로스가 남긴 명언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더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진다. 2014년 건물을 이전하여,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장흥교도소는 어떤 기관보다 이러한 합의의 가치를 바로 새기고 있는 곳이다. '소통'과 '협력'으로 빛나는 역사를 써 내려가는 장흥교도소를 만나보자.



여기에 더해, 지역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장흥교도소가 가진 따뜻한 기운의 정도를 쉬이 짐작할 수 있다.

### 마음과 힘을 하나로 뭉치는 소

오늘 인터뷰가 진행된 장소는 장흥교도소의 '직원사랑방'이다. 소장실 바로 옆에 만들어진 '직원사랑방'은 테라스에 마련되어 카페처럼 꾸며졌다. 무엇보다 '기승이 탁 트인다'는 표현이 적절하리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리적 조건 탓에 멀리 카페에 나갈 수 없는 직원들이 차도 마시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어가는 이 특별한 공간은, 최근 부임한 남상오 소장의 뜻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소 내에 방문객들을 모실만한 곳, 직원들이 쉴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안 남상오 소장이 자신의 소장실에 딸린 베란다를 분리, 개조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남상오 소장이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상오 소장은 처음 소에 부임했을 때 '인화단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인화단결(人和團結)은 '여러 사람이 서로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다'라는 뜻이다.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화합'을 위해 모든 직원들은 노력하고 있다.

유영진 교위는 "평소에도 인화단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소통'을 위해 늘 신경 쓴다"고 말했다.

소는 기관장과 직원 간의 간담회는 물론, 부서별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함께'의 가치를 이루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우리 지금, 자랑거리를 쌓다

장흥교도소에는 자랑거리가 있다. 봉사 동호회인 '정남진 보라미 봉사단'이다. 다른 소에도 봉사단이 있지만, 장흥교도소는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봉사하는 날로 정해 놓고,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배식 봉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남진 및 탐진 그룹홈을 방문해 미취학 아동 학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도 해주고 있다.

### 그 어떤 곳보다 '인간적으로'

장흥은 어머니의 품 같다. 고향을 찾아온 자식에게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는 어머니처럼, 아늑하고 넉넉한 분위기를 풍긴다. 끝없이 이어진 산새 위로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듯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도 하다.

이곳 장흥에 세워진 장흥교도소는 그런 기질을 닮았다. 1975년 4월 15일부터 장흥읍 원도리에 자리해 왔다가, 2014년 8월 28일 장흥읍 용산면으로 이전한 교도소는 이전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리냈고 다시 화목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원들이 교도소 수용 관리, 시설물 정비 등 여러 분야에서 제자리를 잡아가고자 서로 협력해온 덕분이다.

오늘 장흥교도소를 설명해주기 위해 모인 직원들도 하나같이 "소가 참 따뜻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은호 교사는 "직원 수가 그리 많지 않아, 많은 일들을 함께하기에 동료애가 더 끈끈하다"며 "경조사도 내 일처럼 여기는 등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같이 챙겨준다"고 말했다.

수용자와 직원들 간에도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정우성 교위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직원들이 대체로 순하고 너그러운 구석이 있어요. 수용자를 대할 때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죠. 직원들이 진심을 다해 수용자를 관리하는 만큼 수용자들도 직원들을 잘 따르는 편입니다."

이 동호회에 소속된 양택근 교위는 “봉사활동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와 꾸준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호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던 중 양택근 교위는 소에 자랑거리가 하나 더 있다고 미소를 띠며 말했다. 바로 앞에 앉은 정우성 교위다. 지난해 전자정부가 주관한 50주년 기념 공모전에서 정우성 교위가 수기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 수기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가 진행되기 전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은 수용자 가족이 있었는데 민원24시를 이용,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재치를 발휘하며 적절하게 업무에 대응하고, 그 일화를 수기로 써서 공모전 수상까지 했으니, 어찌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을까. 비단 정우성 교위뿐만이 아니라, 장흥교도소의 많은 다재다능한 직원들은 전문성을 키우며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 쉬이 바래지 않을 '43년의 전통'

직원들은 앞으로 장흥교도소의 43년 역사를 잘 닦고 이어가며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도소가 이전한 이후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아졌기에 함께 뭉칠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선후배들이 서로 배려하는 전통을 오래 유지하고 싶단다.

청사동에 직원 사랑방을 준공한 일을 시작으로 각종 모임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직원 간 화합을 한층 더 이루어나겠다는 장흥교도소. 수용자 운동장 개선 등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갈 직원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후배들이 이어받게 될 '장흥교도소'의 역사를 열심히 빛내고 있다. 서로 함께, 그 반짝이는 '인화단결'의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이다.



## 장흥의 가 볼 만한 곳

### 선학동마을

영화 '천년학'과 '서편제'의 배경이 되었던 마을이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학이 날개를 펴려이며 날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관음봉 산자락에 위치하였다. 아름다운 풍경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눈처럼 마을을 온통 뒤덮는 하얀 메밀꽃과 그 위로 몽글몽글 떠 있는 구름, 그리고 저 멀리 파란 하늘 아래 보이는 득량이 그야말로 그림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러 지금 선학동마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 Theme Talk

### 우리들의 화합을 위하여!



교위 정우성

화합의 전제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조차 받아들일 때 제대로 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교위 유명진

장흥교도소는 언제나 화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직원들은 늘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화합하는 '장흥교도소' 파이팅입니다!



교사 정은호

화합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러한 마음을 품었는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이미 화합인 셈입니다.



교도 김현숙

무조건 자기 이익만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조금 더 양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할 때 살짝 뒤로 물러선다면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교도 채종건

직원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는 게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 저 역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서기 김응철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나와 너의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화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언젠가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드랜드

들어서기만 해도 초록의 바람이 불어오는 듯하다. 아름답리 40년생 편백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힐링지다. 장흥읍 시내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억불산 자락에 자리 잡은 우드랜드는 목재문화체험관은 물론, 생태건축체험장, 전남목공예센터 그리고 치유의 숲, 편백소금집(짚질방) 등을 갖추고 있어 자연이 주는 힐링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 사공이 많아도 온전히 바다로 향하도록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조직 내에서, 협업과 화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직과 기업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기에 많은 개인들은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여정에는 때론 많은 갈등이 도사리겠지만, 함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더 없이 빛나는 성과와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협업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목표로 향하는 지름길을 살펴보도록 하자.

### 협업의 목적 바로 알기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누가 ‘협업’이란 단어를 말하면 평균 45세 직장인들이 함께 둘러앉아 멋진 취지와 태도로 고상한 대화를 나누는 팀을 연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협업이 단순히 일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협업을 통해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 이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조직들은 폐쇄적 문화를 타파하고자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지만, 정작 협업의 목표가 협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 창출’이라는 점을 잊어버린다. UC 버클리대학교의 한센(Hanssen) 교수는 그래서 협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 우리 주위에는 제대로 된 협업을 통해 성장해온 기업들이 많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비행기를 발명하고 DNA 구조를 밝힌 것 역시 협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 HARMONY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호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 성공적인 협업으로 가는 지름길

우선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야만 서로에게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팀원은 서로의 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해주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협동이 아니라, ‘경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정확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가 담당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적어도 자기가 맡은 일에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만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 일은 오직 나만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게 된다. 우리는 협업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장점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속담도 있다. 우리가 저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같은 배에 올라탄다면, 먼 바다 끝에 있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에게 협력이 어려운 이유

우리가 협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해결책보다는 아무래도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결점을 발견해내고, 미리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업이 때로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가진 신념과 가치가 분명하기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겨나는 까닭이다.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서 왜 이러한 갈등이 촉발하게 되었는지를 논의하면 서로가 상대방의 잘못된 점들만 이야기하게 되고, 합의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호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 화려한 음악 만찬으로 힐링하다

인천구치소

1938년 인천소년교도소로 개칭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천구치소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해온 곳이다. 1997년 도심형 고층구치소로 새롭게 태어나 지금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업무에 도전해온 인천구치소 가족들. 이달 교정본부가 선택한, 행복 배달 기관이다.



### 여러분의 수고, 우리가 압니다

인천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천구치소는 표지판이 아니면 그냥 지나쳐가기 십상인 곳이다. 세련된 색깔의 고층 건물이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과 조화를 이룬 채 우뚝 서 있으니 지나치는 사람들 모두가 이곳이 교정기관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1938년 인천소년교도소로 문을 열어 1990년 인천구치소로 개칭을 하고 1997년 지금의 건물로 이전을 하기까지 이곳은 참 오래도록 인천광역시와 그 역사의 궤를 함께해온 곳이다. 또한 자타가 공인하는, 난이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8월에 부임한 김정선 소장이 안타까워하는 것도 '비슷한 규모'의 수용자를 수감한 타교정시설에 비해 100여 명이나 적은 직원 숫자다. 그러나 반대로 이는 미처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냈다. 업무가 까다로운 만큼 직원들 간의 끈끈한 정이 유독 돈독한 곳이 바로 인천구치소라는 명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직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는 이곳에 '교정은 행복을 신고'팀이 어찌 행복을 배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난 9월 27일, 오후 4시가 가까워오자 인천구치소에 가벼운 술렁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오로지 교도관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드디어 준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관계자 모두가 열심히 오가면서 음향기기를 세팅하고 공연 준비를 하는 와중에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발 벗고 나서준 총무과 직원이 조금 난감한 얼굴이 되어 다가왔다. "근무 상황 때문에 직원들이 의외로 많이 못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모두가 잠시 당황했으나 "그럼 온 사람들끼리 재밌게 놀면 되죠!"라는 누군가의 힘찬 한마디에 모두가 다시 파이팅을 외치고 환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공연 시간이 점차 다가오자 닫혀 있던 강당 문을 뚫고 하나둘 염탐(?)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한 자리들. 결국 공연시간이 임박하자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직원들이 콕콕 들어왔다. 관계자 모두의 얼굴에서 비로소 안도와 환희가 감돈 순간이다.



**신나는 음악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은 교정기획과 윤종용 교위의 인사말에 인천구치소 직원 모두가 크게 박수를 보낸다. 총무과의 고미숙 교사는 “라이브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해서 열일 제쳐두고 왔다”며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오늘 무대를 장식할 초대 가수는 ‘바이올렛’이다. 전자현악 그룹으로 클래식부터 팝, 가요, 트로트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진, 미모와 실력까지 갖춘 여성그룹이다. 전자바이올린과 플루트를 든 두 연주자가 등장해 먼저 신나는 오프닝 음악으로 무대를 시작했다. 전자바이올린 소리와 눈앞에서 듣는 플루트 소리에 직원 모두가 놀란 얼굴이 되더니 이내 얼굴 근육을 풀고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사실 직원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긴장을 했는데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준비했으니 많이 즐겨주세요. 공연 중간에 뒷문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소장님께서 이를 거예요(일동 웃음).” 바이올렛이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개논’이다. 17세기 후반,

독일을 대표하는 오르간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파헬렐의 곡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클래식이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사용돼 큰 화제를 모았던 곡이기도 하다. ‘개논’을 보다 빠르고 강렬하게 연주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자 모두의 심박 수도 함께 올라간다. 바이올렛이 세 번째로 들려준 곡은 ‘맘보 No.5’이다. 1950년대 전 세계적으로 맘보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곡인 만큼 경쾌한 리듬과 박자가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모두 하나 되어 라틴음악에 신나는 박수로 함께 흥을 냈다. 연주자 사이에 세 번째 인물, 가수가 등장한 것은 5번째 곡에서부터였다. 넋킹콜의 ‘L-O-V-E’를 사랑스럽게 부르면서 등장한 그녀가 객석의 호응을 유도하자 객석의 분위기가 일순간 뒤바뀐다. 노래가 끝나자 직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환호와 함께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자 악기 연주자들이 “지금까지와는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니냐!”며 섹죽 빠진 목소리를 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위로와 에너지를 한번에!**

공연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교정은 행복을 신고’에서 빠지면 섭섭한 코너가 등장했다. 바로 문화상품권이 걸린 퀴즈 코너다. 오늘 첫 번째 퀴즈는 난센스 문제. “날마다 새로운 욕을 만드는 곳은?” 바이올렛이 “쉽게 맞출 수 있겠냐”며 걱정 어린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자 직원들도 웅성거린다. 잠시 뒤 “뉴욕!”이라고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 정답을 외치자 여지없이 웃음이 터졌다. 이후에도 “아프지 않아도 매일 사용하는 약은?”, “인천구치소의 현 소장은 몇 대 소장인가?”하는 질문이 이어졌고 직원들 모두가 “치약!”, “28대!”를 연달아 외치며 신나게 상품을 챙겨갔다. 나머지 퀴즈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남겨뒀다고 센스 있게 덧붙인 ‘바이올렛’이 다시금 신나는 공연을 시작했다. 200여 곡이 넘는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밴드답게 이번에 나온 곡은 무려 ‘꽃타령’이다. 절로 어깨가 들썩이는 우리 민요에 모두 슬쩍 슬쩍 몸을 흔들며 그간의 스트레스를 털어버린다.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트와이스의 히트곡들도 연달아 이어졌는데 특히 트와이스의 ‘치어업’을 부를 때는 많은 직원들이 아는 노래가 나온 반가움에 더 큰 환호성을 질렀다.

연달아 노래가 끝나고 드디어 준비된 마지막 퀴즈가 나왔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이번에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머리를 맞대고 두런두런 의논을 한 끝에 직원 중 한 사람이 그다지 자신 없는 목소리로 “19만?”을 외치자 다들 순간 어리둥절해 했다. “19만?”, “왜?”, “쉽구(19)만!” 다들 그걸 어떻게 맞췄냐며 또 한번 폭소가 쏟아졌다. 마지막 퀴즈의 답은 뜻밖에도 김정선 소장이 맞췄다. 인천구치소가 개칭한 연도를 묻는 질문에 다른 직원들이 계속 오답을 외치자 결국 막판에 손을 번쩍 들고 맞춘 것. 문화상품권을 받으며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마치 금메달이라도 딴 듯 해 또 다시 박수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사랑의 배터리’와 ‘업타운펍크로’ 신명 나게 마무리한 오늘 하루! 웃음과 박수, 시원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 속에서 잠시나마 업무를 잊고 웃고 박수쳤던 인천구치소 직원들이 오늘 이 행복했던 여운을 오래오래 가져가 새로운 힘을 가득 얻기를 바라본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현장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정은 행복을 Happy corrections

Mini Interview



## 인천구치소

섬세하게 올려펴진 바이올렛 공연!  
그 감성에 취했던 직원들이 공연을 관람한 소감을 전했다.



### 교사 박재혁

처음에는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1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사실 수용자들을 위한 행사는 많아도 교도관들을 위한 행사는 보기 힘든 게 사실인데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확, 풀고 갑니다.



### 교사 박상균

클래식부터, 가요, 팝까지 정말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라이브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신났는데 마무리까지 정말 즐거웠어요. 좋은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인천구치소 가족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건강합시다!



### 교도 최송희

너무나 신나는 공연이었어요. 어깨춤이 절로 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말 그대로 제대로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소가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라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좋은 선물을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그룹 바이올렛

구치소 공연은 처음이라 사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 이상으로 많이 찾아와주시고 호응을 해주셔서 신나게 공연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교도관님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 자리를 빌려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 교사 최희병

플룻과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멋진 줄 몰랐습니다.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특히 '맘보 No.5'가 아주 신났어요. 직원들끼리 끈끈한 정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 인천구치소, 언제나 사랑합니다!



### 교도 김상희

추석에도 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쌓였었어요. 사실 오늘 행사도 조금 부담을 안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플룻은 피꼬리 소리 같고 바이올린 소리는 마음을 울리는 게 정말 색다른 감동과 흥을 안겨주었어요. 공연 내내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 식품위생서기보 강경미

다양한 크로스오버 음악을 바로 코앞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참석한 저희들은 너무 좋았는데 근무 때문에 참석 못한 직원분들이 많아 음악을 들으면서 내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야간근무자들을 위한 행복 선물도 배달됐으면 좋겠어요.



# 온 가족 수원 나들이 새 가정을 꾸리는 딸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이평섭 가족



오늘 '아빠 어디가' 코너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는 젊은 교도관 가족이 주를 이루었던 이 시간에 성장한 자녀를 둔 이평섭 교감이 참여를 했기 때문이다. 애지중지 키워왔던 딸이 품에서 떠나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날을 코앞에 둔 이평섭 교감 가족. 네 사람이 함께 보내는 소중한 추억의 현장에 '아빠 어디가'팀이 동행을 했다.



## 특별한 추억 쌓기

10월 3일 오전, 수원시 국궁체험장에서 만난 이평섭 교감 가족의 표정은 환했다. 사연을 보내온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이평섭 교감을 선두로 아내 최영란 씨, 결혼식을 앞둔 딸 은혜 씨, 아들 재원 씨까지 모두가 쑥스러우면서도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등장한 것이다. 주로 꼬마들과 함께 하는 가족나들이를 해왔던 터라, 장성한 두 자녀와 함께 나눈 이 인사는 '아빠 어디가'팀에게도 신선하고 색달랐다.

“그동안 교정 소식지를 쭉 봤었는데 이 코너는 늘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이 참여하시더라고요. 나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고 할까 봐(웃음) 망설였지요. 그러다가 딸의 결혼을 코앞에 두고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나들이를 가장 기대하고 즐거워한 이는 아내 최영란 씨이다. 원체 밝은 성품을 가진 인물답게 남편, 아들, 딸을 대동하고 나선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한 것. “자상한 남편을 뒤서 이런 선물까지 받은 것 같다”라는 말에 이평섭 교감이 또 입꼬리를 끌어올린다.



올해로 결혼 27년째를 맞는 이평섭 교감 부부의 인연은 특별하다. 이평섭 교감이 전주교도소에 근무하던 당시, 아내의 작은아버지였던 상사로부터 “조카딸이 있는데 소개를 받아보지 않겠냐”는 얘기를 듣고 처음 얼굴을 마주한 것이다.

“소개 자리에 나가 보니 장모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까지 나와 계시더라고요. 마치 상견례 같은 분위기에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결국 두 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보통 인연은 아니었던 셈이지요.”

이평섭 교감은 받고 착했던 아내와 효부상까지 받았던 장모님의 인품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고 아내 최영란 씨 역시 평생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평섭 교감을 삶의 동반자로 선택했다. 결국 그 날의 만남이 오늘 가족나들이의 모태가 된 셈이다.



### 활쏘기에 근심을 날려 보내고

즐거운 이야기 끝에 국궁체험 예약을 해둔 시간이 가까워져오자 가족 모두가 들뜬 표정으로 체험장으로 들어섰다.

정조대왕 친위부대인 장용영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하고 훈련하던 수원화성 연무대라 과연 그 공간과 기세가 아름답고 강하다. 모두가 나란히 서서 드넓게 펼쳐진 푸른 녹지에 놓인 곱 과녁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사대에 그려진 발 그림 모양대로 선 채 강사의 지도에 따라 활을 잡는 법, 시위를 당기는 법, 쏘는 법까지 꼼꼼하게 들었다. 아빠, 딸, 엄마, 아들 순서대로 서서 나란히 활시위를 당기자 그 모습 자체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근사한 그림이 된다.

탁, 시위를 당기자 화살이 날아가는데 재원 씨는 남다른 힘으로 활을 과녁 바깥으로 넘겨 버리고 힘이 약한 엄마와 딸은 과녁까지 미치지 못해 살이 중간에 툭 떨어져 버린다. 하지만 괜찮다. 가족에게는 아직 9발의 화살이 남아있기에. 다시금 재장전해서 쏘는 화살이 점점 회차를 거듭하자 정교해지기 시작했다. 재원 씨가 옆에서 엄마를 꼼꼼히 챙기자 조금씩 나아지는 실력을 보여주는 엄마다. 결국 영란 씨는 과녁에 화살을 맞히고 아이처럼 좋아한다.

### 행복은 두둥실 하늘에 띄우고

다음은 수원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열기구를 타볼 차례이다. 열기구를 타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잠시 인근 성곽길을 산책하기로 했다. 연무대를 구경하고 급이굽이 단단하게 쌓아 올린 성곽을 따라 걸어본다. 오누이는 나란히 팔짱을 낀 채 두런두런 이야기에 여념이 없고 부부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대화를 나눈다. 따가운 가을 햇볕 속을 누비다가 예정된 열기구를 타러 갔다. 30여 분을 기다렸다가 탄 열기구는 말 그대로 장관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의 중간에 떠 있는 느낌은 마치 바다 한복판에 선 듯한 느낌이었다. 저 멀리 수원화성까지 마치 입체 지도를 보듯 시야에 꽉 차니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여간 크지 않다. 수원의 새로운 모습을 만난 가족들의 얼굴에서는 놀라움이 묻어나온다. “생각보다 굉장히 볼만 한데요?”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미술관 나들이다. <김학두 : 매순간, 영원히>, <자연스럽게>, <찍.다>. 세 가지 섹션이 전시 중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 들어서자 모두가 낮은 탄성을 지른다. 수원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원로미술인 김학두 화가의 작품에는 부부가 눈을 떼지 못하고, 자연환경과 관련된 <자연스럽게> 코너에서는 아들, 딸이 집중한다. 천천히 작품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에서는



진중함과 애뜻함이 엮보인다.

“첫딸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웠습니다.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도 있는데 캠퍼스 커플로 오래 연애를 했고 자기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허락을 했지요.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제 곧 결혼해서 독립해 나갈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져온다. 아버지의 애뜻한 말에 은혜 씨도 화답한다.

“결혼이라는 게 집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이제 건강도 챙기면서 쉬엄쉬엄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어머니께는 더 잘하는 딸이 되고 싶고요. 남동생은 빨리 방을 빼라고 성화인데(일동 폭소) 이제 제가 빠진 자리를 잘 메워서 부모님을 잘 챙겨주길 바라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연신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평섭 교감 부부, 말은 지긋지긋한 그 안에서 누나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못하는 재원 씨. 오늘은 새 출발을 하는 딸을 축복하고 이만큼 잘 자라준 아이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 날로 부부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TIP

### 수원화성 국궁체험장

전화번호 031-255-8910  
 위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청룡대로103번길 8 연무대활터  
 ※ 1회 10발 2000원 (만 7세부터 참여 가능)

### 플라잉수원(열기구 체험)

전화번호 031-247-1300  
 위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97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화번호 031-228-3800  
 위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영업시간 매일 10:00 ~ 19:00 (입장마감 18:00)  
 월요일 휴무

“아빠! 어디가?”는 교정인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월간 <교정>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신청 메일 주소  
 -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 가을바람처럼 살랑였던 '멋진 하루'

이름만 들어도 왜인지 오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지역 '전주'. 역사의 숨결이 곳곳에 남아 있는 이 아름다운 전주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뜻깊은 사연을 보내왔다. 고마운 사람들과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일'로 맺어진 동료들이, 이제 일을 통해 쌓아온 '친분'으로 특별했던 하루를 장식한 현장, 그날을 들여다보자.



〈전주교도소〉 민원과  
교정관 이병호, 교감 박은하, 교감 김석우, 교위 문종현, 교위 이용민

## 가족 같은 '케미스트리'를 내뿜다

함께 서 있기만 해도 잘 어울리는 다섯 명의 직원들이다. 오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될 전주교도소 직원들을 처음 마주하고 든 생각이었다. 민원과 이병호 교정관, 박은하 교감, 김석우 교감, 문종현 교위, 그리고 이용민 교위까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만큼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직원들은, 이미 본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전에 환한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의 이벤트를 신청한 주인공은 바로 문종현 교위다. "동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던 참에 교정 소식지의 '어느 멋진 날'이 생각났다"는 그는 "즐겁게 시간도 보내고, 추억도 남길 수 있으니 이만한 기회가 없지 않느냐"며 이벤트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전했다. 문종현 교위의 진솔한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직원들도 하나같이 "기대된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였다.

오늘 이벤트의 '시작'은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근사한 저녁식사다. 스테이크, 파스타 등을 뷔페 형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이곳에서 직원들은 미소를 띠며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골랐다. 접시에 음식들을 가득 담아 테이블로 가져온 직원들은, 이내 식사에 집중하더니 연신 "너무 맛있다"고 감탄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칭찬할 거리가 많은 '우리 동료들'**

저녁을 먹는 와중에도 문중현 교위는 동료들에 대한 칭찬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병호 과장님은 아버지 같은 자상함으로 민원과를 이끌어 가세요. 박은하 계장님은 항상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고요. 낙천적 성격과 잘생긴 외모를 두루 갖춘 김석우 계장님,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도 불편한 내색 한번 없는 이용민 주임님도 전주교도소의 자랑입니다.”

동료들을 향해 애정을 가득 담아 칭찬하는 문중현 교위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각인되고 있는지 쉬이 짐작이 갔다. 동료들도 그런 문중현 교위를 향해 칭찬을 빠뜨리지 않았다. “문중현 주임님은 늘 동료들을 챙겨요. 힘든 일은 없는지, 먼저 물어봐 주며 고민을 들어주죠. 소의 버팀목 같은 존재랄까요.”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동료애가 끈끈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전주교도소는 수용인원이 많고 문제 수용자들도 적지 않은데,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 동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부담감을 나눈다. 이용민 교위는 “늘 정이 넘치는 이곳 전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게 정말 좋다”고 웃으며 얘기했다. 동료들도 그 말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맛있게 저녁을 먹는 직원들은 이제 두 번째 이벤트를 시작하려는 참이다. 바로 영화 관람이다.

직원들이 선택한 영화는 <안시성>. 양만춘 장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영화를 보려는 이유에 대해 직원들이 의미 있는 대답을 내놓았다.

“스케일도 크고 멋진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그때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 만큼, 남다른 의미와 교훈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본받는다면, 근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정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며 늘 최선을 다해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



**서로를 위하겠다는 행복한 다짐**

2시간여 동안 영화를 관람하고 나온 직원들은 “역시 좋은 선택이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하루의 오후, 그 행복한 시간을 추억으로 함께 새긴 동료들은 마지막으로 소감을 전하며 오늘의 이벤트를 마무리했다. 이병호 교정관이 먼저 대표로 나서 말했다.

“고된 업무로 늘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들과 열심히 근무하고 싶어요. 동료들에게도 지금처럼 열심히 제 자리에 서 제 몫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교도소 파이팅입니다!”

‘홍일점’ 박은하 교감 역시 웃으며 소감을 말했다.

“교정공무원들은 야간 업무도 해야 하는 만큼 늘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해 남들보다 더 애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정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며 늘 최선을 다해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뜻깊은 이벤트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 그리고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더 많은 동료들과 오늘 이벤트를 함께하지 못한 것에 아쉬워한 직원들. 이처럼 매 순간 동료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전주교도소 직원들은 흘러가는 하루에도 ‘함께’의 의미를 새겨가고 있었다. 10월의 첫 시작을 ‘어느 멋진 날’로 기록한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앞으로도 그 의미를 단단히 새겨가길 기대해본다.



가을날씨처럼  
딱 좋았던 날



**교위 문중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웃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동료들과 채워나갔던 의미가 새겨졌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게 되어 더 기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동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한 농촌에서 풍요로움을 수확하다 : 가족들과 농촌 체험하기

가을이 익을 대로 익었다. 오곡백과가 들판과 산기슭에 펼쳐져 있고, 산뜻한 바람, 적절한 습도가 자연 속에 조화를 이룬다. 어디를 가든 풍요로운 요즈음, 온 가족이 함께 각종 농작물을 직접 캐고 거두면서 농업을 체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적은 비용으로 가을 정취에 흠뻑 젖어보면서 가족들과 넉넉한 추억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무더위가 끝난 정겨운 농촌에서 가족들과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자연의 정취와 여유 있는 삶을 느껴보자. 특히 도시인들이라면 농촌으로 향하기만 해도 청량한 '힐링'을 만끽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아이들과 농촌 체험을 한다면 특별한 일상도 쌓을 수 있다. 농촌 체험은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활동이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덕분이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되고,

사람이 먹는 농작물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또한 자연과 농촌을 체험하는 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과 정서가 순화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들이 자연과 농촌을 체험하는 기회를 많이 접할수록 감성지수가 높아지고 창의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자연은 놀이와 배움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대한 학교인 것이다. 특히, 그 자연 속에서 부모와 함께 무언가를 일구거나 수확한다면, 아이들은 부모와 새롭게 교감하고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다.



### 농촌 체험 진행 요령



#### 하나. 준비물을 꼼꼼히 챙긴다.

농촌 체험의 경우 뜨거운 햇빛, 벌레 등을 피하기가 어렵다. 자외선 아래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제 등을 꼭 바르고 활동해야 한다. 또 피부가 손상되거나 벌레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얇은 긴 팔과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 둘. 예약을 먼저 한다.

체험마을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기 있는 곳의 경우 금방 선착순 마감일 되기도 하므로 예약을 놓칠 수 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 인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꼭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셋. 체험 활동을 복기한다.

단지 체험만 하고 끝나면 의미를 더할 수 없다. 체험 활동을 한 이후에 아이의 기분은 어땠는지, 무엇이 인상 깊었는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야기하며 농작물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 농촌 체험 추천 지역



#### 경기도 여주

경기도 여주로 고구마 캐기 체험을 나서보자. 땅속에서 보물을 찾듯 탄실하게 자란 고구마를 줄줄이 캐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풍성해진다. 여주는 예전에 밤고구마가 유명했지만, 지금은 일명 '꿀 고구마'라 하는 베니 하루카 품종을 많이 재배한다. 수확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달고 고소해서 인기다. 넓은들녹색농촌체험마을은 가을철 고구마 캐기를 비롯해 고구마묵 만들기, 떡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충청북도 보은

대추와 사과로 유명한 충북 보은은 이맘때 가장 분주하다. 농부의 정성이 담긴 대추와 사과를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여행자가 몰려들기 때문이다. 특히 보은 대추는 특별해서 임금님께 진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삭하게 씹히는 맛과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보은에서는 사과를 수확하는 체험도 가능하다. 사과나무체험학교에 미리 신청하면 빨간 사과를 직접 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 활동을 검색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 당신의 장은 안녕하십니까요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변비' 때문이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은 변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변비를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요즘, 변비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한다.

## 몸 안에 독성이 쌓일 때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탓에 식이섬유 섭취량이 부족하고, 바쁜 일과 때문에 배변 욕구를 억제하는 일이 잦다. 그 때문에 배변을 하지 못하고 변비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변비는 간단하게 치부해야 할 증상이 아니다. 변비가 반드시 대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비가 심하면 대장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변비에 의해 대변이 장내에 오랫동안 머물면, 장내에서 만들어진 독성물질이 체외로 바로 배출되지 못해 그 양이 증가하고, 대장 점막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 구분되어야 할 변비의 증상들

윗배에 변이 차 있는데도 변의를 못 느끼는 서행성 변비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변비이다. 보통 장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세포가 감소돼 있는 상황으로, 대장의 운동능력이 떨어져 변을 직장으로 밀어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변의 자체가 생기지 않으며, 대장에 변이 꽂찰 때까지 1~2주는 복통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배가 아플 때까지 변을 보지 못하면 병원에서 관장을 하거나, 전문의약품인 위장관운동촉진제를 처방받아야 한다.



복통과 메스꺼움을 느끼고 딱딱한 변이 나오는 경련성 변비는 과민성장증후군과 관련이 있다. 장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변비가 생기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내장감각이 예민하거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으면 경련이 일어난다.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고 복통과 메스꺼움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는 등 수분을 공급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유산균 섭취도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

## 변비 치료의 키워드, 식이섬유와 마시지

변비에는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이 좋다. 속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곡물류, 채소, 과일, 차전자 씨, 해초, 한천 등이 해당된다. 특히 차전자 씨는 그 자체가 거의 100% 식이섬유인 원료로,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성이 인정되었다.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상재균에 의해 발효되며 상재균의 성장을 유발해 변 덩어리를 크게 한다. 대장 내에서 물, 이온과 결합해 변을 부드럽게 하고 부피를 크게 함으로써, 배변 횟수와 대변량을 증가시켜 변비를 개선시킨다고 한다.

복부 마사지를 자주 해주는 것도 변비에 효과적이다. 앉거나 누워서 오른쪽 아랫배에서 왼쪽 아랫배 방향으로 즉 시계방향으로 한 번에 10분씩 하루 2회 정도 복부 마사지를 하면 좋다. 또한 매일 아침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가서 변이 나오지 않아도 5분씩 앉아 있는 훈련을 하면 그 시간에 변을 보게 된다.

반사적으로 대장운동을 시키는 방법으로는 식사 전에 찬물 한 컵을 마시거나 찬 우유를 한 컵 마시는 것이다. 위·대장반사로 변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식습관과 마사지, 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변비 치료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 TIP

### 바나나는 과연 변비 치료에 효과적일까?



바나나가 익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 바나나는 익어가면서 전분 상태에서 당분 상태로 바뀌는데 전분 상태의 익지 않은 푸른 바나나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다만, 노랗게 익은 바나나에 함유된 식물성 섬유 '펙틴'은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 설사와 변비에 좋은 효과를 낸다.

## 변비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 1. 다리 모아 비틀기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 쪽 펴고 앉아 양손을 뒤로 돌려 손바닥으로 짚는다.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히며 다리를 들어 올려 왼쪽으로 비튼 뒤 다시 오른쪽으로 비트는 동작을 반복한다.

### 2. 서서 허리 틀기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서서 양손을 깍지를 끼고 위로 쪽 뻗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다. 골반을 좌우로 번갈아 옆으로 빼는 듯한 동작을 반복한다. 초보자는 복부가 땅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한다.







## 언어의 심지에 불을 밝힐 때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시

시인이자 강사로 활동하는 크리스티나 도메네치는 아르헨티나의 감옥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가 가진 아름다움, 그리고 언어가 전하는 자유로움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했다. 수용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한 것이다. 언어를 통해 수용자들이 단 것은 곧 자유의 날개였다.



Cristina Domenech  
TED 강연 영상



불을 퍼뜨리는 폭풍을 타고,



교도소에서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꺼풀을 달을 수도 없어요."

### 시의 언어를 익히다

2009년, 저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글쓰기 강습을 하러 교도소로 향하였습니다. 처음 수강자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글쓰기 강습을 받기 원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종이에 적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수용자는 문법을 완벽히 몰랐으며, 필기체를 쓸 줄 몰랐습니다. 글을 숨서 있게 쓰지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짧은 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시를 말입니다. 수용자들은 그 시들을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의 언어가 일정한 논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언어의 체계를 탄생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 고통 속에서 시가 탄생된다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옥에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지옥을 경험합니다. 수용자들 중 한 사람은 시 쓰기를 하던 중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는 절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CRISTINA DOMENECH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침묵의 시간을 주고 말했죠. "침묵이 바로 시입니다. 시는 이 감옥이라는 세상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절대 잘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두려움이 뿔어져 나옵니다. 이 두려움, 나타나지 않는 모든 감정과 생각이 바로 시입니다."

### 영혼을 치유한 수용자들

어느덧 시를 쓰게 된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가족, 친구들을 초대해 시 낭독회를 열었습니다. 덩치가 큰 수용자들이 크나큰 자부심으로 종이를 들고, 어린아이처럼 떨며, 맘을 흘리고 목소리가 부서지듯 시를 낭독했습니다. 수용자들은 초대받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책을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 책이 완성되면 다른 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어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시가 자유를 선물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 자유를 뺏기지 않는 순간

감옥에서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는 울 수조차 없습니다. 시간, 미래, 소망 같은 단어들은 감옥에서 금기시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꿈꾸는 것에 도전했고, 꿈을 마음껏 꾸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수용자들은 글을 쓰는 순간, 특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유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펜을 굴립니다. 글을 쓸 때만큼은 절대 자유를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죠. 이를 통해 그들은 또한 깨닫습니다. 지금 이곳이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언어의 심지에 불을 밝힐 때면 우리는 모두 행복으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 TED 'Poetry that frees the soul'편 시청방법

www.ted.com에 접속한다 → 오른쪽 위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검색창에 'Cristina Domenech'를 입력한다 → 동영상 중 Cristina Domenech: 'Poetry that frees the soul'을 재생한다.

\* 동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의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지원된다.

## 특별한 여정에 오르다

### 일본 후지산 등반을 마치고



산악인이라면 백두산(2,744m), 한라산(1,950m)은 물론, 이웃 일본의 후지산을 등반하고 싶어 합니다. 후지산은 해발 3,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고 유명한 산입니다. 1707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한 휴화산으로, 일본에서 매우 신성시되며 전 세계인들이 찾아드는 명산이기도 합니다.

교정동우회 회원들 중에서도 후지산 등반을 희망한 총 9명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후지산을 등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산행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의 손꼽히는 산들을 등반하는 것은 물론, 후지산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공부했고, 유럽 알프스, 남미 안데스산 등을 정복한 전문 산악인 권희영 전 청장께도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덧 후지산 등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3박 4일을 보내게 될 우리들은 여권과 준비물을 챙겨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 도착, 신주쿠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문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설렘과 걱정의 낯빛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신주쿠역과 가까운 호텔에서 1박을 머무르고, 다음날 신주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후지산 관광 버스에 올랐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나 후지산 중턱인 후지노미야구치 버스 종점 '오합목'(2,400m)에 도착하니, 주변은 이미 인산인해였습니다.

오합목에서 각자 짐을 챙겨 6합목(2,500m)까지 올랐습니다. 오르막길임에도 평탄하여 수월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합목(2,780m)까지는 높은 경사가 거듭되어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약 2시간이 흘러 7합목에 도착하였고 숙소를 잡았습니다. 말이 산장이지 2층으로 되어있는 침실은 너무나도 협소해 옆 사람이 누우면 어깨가 맞닿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일 시작될 등산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는 등 마는 등 하다 새벽 1시경에 기상해 이것저것 챙기니 1시 30분경이 되었습니다. 전 대원이 일어나 랜턴을 켜고 밖을 나서니 날씨는 초가을인 듯 선선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수놓아진 도쿄 시내의 불빛들이 장관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룹이 다소 끼였으나 맑은 날씨로 등산하기엔 좋은 날이었습니다. 1시 50분, 본격적인 등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소 캄캄했던 새벽녘, 가져온 랜턴을 켜고 일렬로 서서 오르는 모양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 멀리 정상부터 중간 허리까지 이어지는 불빛은 후지산 전체를 반짝이는 꽃으로 심어놓은 듯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7합목에서 8합목(3,400m), 9합목(3,450m)을 오르는데 오르막 경사가 계속 이어져 숨이 턱까지 찼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겨우 8합목에 이르니 해가 뜨기 시작하여 모두 후지산에서 기념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이제 9합목과 마지막 10합목(3,580m)에서 후지산 정상인 겐가미네(3,776m)까지는 약 200m가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올랐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에 정상인 분화구에서 기념사진을 먼저 촬영했고, 이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분화구에는 움푹 팬 큰 웅덩이나 물도 없었고 풀도 나무도 없었습니다. 8시에 아침을 먹고 다시 하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상의 기온은 우리나라 여름 기온과 비슷해 땀이 절로 났습니다.

하산하는 길은 좁은 길이었는데 모래, 화산재와 자갈 등이 섞여서 미끄러웠습니다. 때문에 내려오는 길이 올라가는 길보다 되레 더 힘들었습니다. 경사진 길을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앞만 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다가도 난데없이 나타난 구름으로 산 중턱을 뒤덮어, 앞뒤를 분간 못하게 한 날씨 역시 마치 후지산의 심술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지와 모래 등으로 악전고투해야 했던 우리 대원들은 때때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바람에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다들 기진맥진한 상태로 약 4시간에 걸쳐 하산에 성공했습니다. 5합목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모두가 안도했고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서로 잘했다고 격려하며 따뜻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석별의 정을 나누며 모든 일정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번 등반은 대원들의 일치된 모습과 상호협조, 그리고 배려로 성공한 등반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전 대원의 노고와 배려에 한 번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정공무원의 화합과 축제의 현장

### 제53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지난 9월 14일 법무연수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유도·검도협회 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교정기관의 선수단 및 응원단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열렸다. 교정 가족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빛났던 그 현장을 지금 살펴보자.



#### 가족들도 함께한 교도관 무도대회

경기가 열리는 법무연수원 체육관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와중에도 참가자들은 물론, 동료와 가족을 응원하기 위한 인파로 이른 시간부터 이미 만원을 이뤘다. 1949년에 시작돼 어느덧 53회를 맞은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무도대회는 교정인들의 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많은 교정 가족들이 몰려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행사장 야외무대에서 버스킹 공연, 캐리커처·캘리그래피 체험이 이뤄졌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라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돼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곳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가 가족들을 위해 간식을 무료로 제공한 사랑의 푸드트럭이다. 결승전이 끝날 때까지 푸드트럭은 체육관의 열기만큼 뜨거웠다.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것은 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집중치유 프로그램 부스다.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이곳에 많은 교도관들이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예선 경기를 마치고 개회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유도·검도협회 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교정공무원 상호 단결과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70년째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교도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대회가 시작됐다.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 교정공무원 시범단이 낙법, 호신술, 격파 등 시범 공연을 통해 틈틈이 갈고 닦은 무예의 진수를 선보여 많은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대회의 열기가 한껏 고조됐다. 이날 무도대회는 전국 38개 교정기관의 51개 팀, 374명의 선수가 태권도, 유도, 검도 등 3개 종목에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쌓아온 무도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손에 땀을 쥐게 한 명승부

오전의 예선 경기와 달리 토너먼트가 진행될수록 경기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계속되는 경기에서 선수들의 체력은 점점 한계에 부딪혀갔지만 선수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이어갔다.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만큼 응원단들 역시 박수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힘을 북돋아 주었다.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만큼 어느덧 경기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대망의 결승전 세 경기만이 남았다. 가장 먼저 열린 결승전은 유도, 2014년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진주교도소와 서울구치소가 4년 만에 결승전에서 다시 만났다. 서울구치소가 4년 전 패배를 딛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진주교도소가 기세를 몰아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할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체육관으로 모아졌다. 선수들의 기합만큼 응원단들의 장외대결도 뜨거운 불거리를 제공했다. 흥미로웠던 승부는 서울구치소의 우승으로



끝이 났다. 이어진 검도 부문에서는 2011년 이후 7년 만에 대전교도소가 원주교도소를 물리치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제 무도대회는 태권도 결승전 단 한 경기만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2010년 우승 이래 수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안양교도소와 아직 단 한 번도 수상한 적이 없는 울산구치소의 승부는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가 연출됐다. 옆치락뒤치락하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경기는 결국 안양교도소가 8년 만의 우승을 차지하며 막을 내렸다.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의 단체전 수상도 진행됐다. 목이 쉬도록 열띤 응원을 보낸 인천구치소, 부산교도소, 순천교도소가 응원상을 차지했다. 유도 부문 서울구치소 김완석 교사, 검도 부문 대전교도소 김권기 교위, 태권도 부문 안양교도소 유승현 교위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돼 국내여행권과 3일간의 포상휴가라는 달콤한 선물까지 받았다.

경기 내내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서로를 존중하는 페어플레이를 펼친 모든 선수들. 여기에 열정적인 응원을 펼친 교정 가족이 함께한 제53회 교도관 무도대회는, 말 그대로 축제의 현장이었다. 승부를 위한 대회가 아닌,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진심으로 축하한, 교정 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이룰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최우수선수 인터뷰

유도

서울구치소 교사 김완석

“서울구치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일과 후 구치소 내 연무관에서 훈련에 매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의 우승이라 더욱 값진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검도

대전교도소 교위 김권기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특히 제가 지난해 11월에 대전교도소로 온 뒤에 첫 무도대회에서 값진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더 행복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보안과에서 맡은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도

안양교도소 교위 유승현

“유도에서는 2016년, 2017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는데 태권도에서는 우승을 한 지가 오래된 만큼 더욱 기쁩니다. 근무를 마치면 동기 4명과 후배 2명과 함께 땀을 흘리곤 했는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틈틈이 기량을 닦아 교정교회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53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수상 내역

	유도	검도	태권도	응원상
1위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안양교도소	인천구치소
2위	진주교도소	원주교도소	울산구치소	부산교도소
3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순천교도소
	안동교도소	충주구치소	순천교도소	



가족 인터뷰



진주교도소 교위 오청룡 가족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이렇게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뿌듯합니다. 3년 전 유도 부문에서 부상을 무릅쓰고 우승하고 최우수선수로도 뽑혔지만 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리서 아내와 딸도 함께 방문해 소중한 추억을 하나 더 쌓은 것 같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안동교도소 교사 김길수 가족

“4위가 목표였는데 수상까지 하게 돼 목표를 이뤘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연습을 하며 1개월 남짓 동안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가족이 함께 있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 교정조직 독립의 필요성과 과제(上)<sup>1)</sup>



## I. 서론

교정은 형사사법의 최종적 단계로 형의 집행과 교정교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띤 정부 행정조직이다. 교정본부는 1만 5,000명의 직원과 5만 7,000명의 수용자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타 외청의 소속직원 수와 비교할 때 외청 단위 조직으로 4번째에 해당한다(법무부 내부자료, 2018).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모두 독립적인 외청으로서 조직,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비해서 유사한 목표를 가진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 보조기관으로서 법무부 내 정책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범죄환경의 변화와 교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학자들은 2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목소리로 교정청<sup>2)</sup> 독립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개정안 발의 등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교정본부에서도 학계와 국회와 협조하여 조직의 독립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현직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향후 10년간 교정 영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과제나 동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다수의 응답자들이 교정청 독립을 최우선(이백철, 2017:40)으로 꼽았을 만큼 교정인들에게는 가장 큰 염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교정조직의 독립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정리한다. 둘째, 국회에서 시도된 교정청 독립을 위한 법안발의의 경과를 확인하고 셋째, 교정조직 독립의 논거로 제시된 교정수요의 급증과 전문성에 대해 당위론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정수요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교정의 전문화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국회, 그리고 조직내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정청 독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정책학적 분석틀을 가지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정(교화)청의 필요성과 교정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2018년 ‘교정’ 이번호에 실린 상편의 글과 11월호에 실릴 하편의 글은 교정연구 제28권 제2호(2018. 06. 30.)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독립조직의 명칭은 교정청, 교정보호청, 중앙교정청, 교정교화청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II.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학계의 노력

교정조직의 독립에 대한 학계의 주장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려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정연구』 창간호에 실린 논문에서 김보환(1991:41-42)은 교정수요의 증가를 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보여주면서 “교정시설의 증가와 교정업무의 팽창은 감독기구의 기능을 분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이때부터 교정행정의 전문화, 효율화에 대한 요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교정조직 개편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계속되어 왔다. 시기 순으로 그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윤호와 정동진(1993:2-39)은 “범죄의 질적 악화와 양적 증가는 교정의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음주관련 범죄, 성범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등장은 전문적이고 특수한 교정을 필요로 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신장은 수용자 인권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교정조직은 지휘명령체통의 조직에 지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STAFF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교정이 다른 형사사법기관들과는 차별화되는 독립적 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무부의 내국에 지나지 않아서 독립적 교정업무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교정청으로의 독립이 최선이며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를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함께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입장은 ‘교정과보호의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정의 궁극적 목표인 범죄자의 성공적 사회복귀와 재사회화에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볼 때 교정과 보호를 통합한 교정청으로의 독립은 시기상조이고, 우선 교정국의 교정청 독립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범죄자의 구금확보와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방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교정공무원법의 제정 필요성,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의 독립기관화 필요성도 함께 주장하였다. 이영근(2000:49)은 “교정국 조직은 다른 외청과 비교해 볼 때 4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정원만으로도 중앙부처 수준 이상이며 이러한 거대조직이 한 부처의 보조기구로 설치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교정행정의 특수성, 효율성을 위해 독립된 중

양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설치방안으로는 ‘중앙교정청’으로 승격시켜 교정국과 보호국기능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유사기능의 통폐합과 기능의 재정립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의 이념’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하여 중앙교정청을 설치하게 되면 법무부의 인력이나 예산 등이 80% 이상 감소되는 기현상이 초래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무부 기능과 유사한 법제처를 법무부로 편입시키는 방안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정연구기관의 독립설치와 교정공무원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허주욱(2003:62)은 ‘교정조직의 발전적 개편방안’이라는 논문에서 국가형벌권의 3대축 중에서 유일하게 교정국만 독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법원은 법원조직법, 검찰은 검찰청법, 경찰은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인사, 예산, 업무집행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데 반해 교정직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 다른 외청들과 공무원 정원 및 예산을 비교해 볼 때 방대한 조직이 법무부의 1개 내국에 불과한 것은 조직의 규모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가칭) 교정청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정공무원의 직무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독립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므로 교정연수원을 설치하고 교정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특수성을 반영한 특정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영근(2003:279)은 교정과 보호조직의 발전 방향을 논하면서 교정국과 보호국의 통합과 가칭 교정보호청으로의 승격을 주장하였다. 16개의 외청과 인원 및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정원 기준 4위, 예산 기준 5위에 해당하는 거대한 조직으로서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독립청으로서의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교정보호 전문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교정직과 보호직 공무원을 일반적 공무원에서 분리하여 법관, 소방, 교육, 외무 등과 같이 특정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 언급한 학자들이 교정조직을 기준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영수(2004:146)는 보호관찰조직을 중심으로 가칭 ‘교정보호청’에 대한 조직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시키는 구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

은 보호관찰조직이 교정조직의 하부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사회 내 처우(보호관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조직의 규모나 크기를 보고 이에 짜 맞추는 식의 조직개편이 아니라 사회 내 처우의 중요성과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수평적으로 위치시키고 보호국 소관인 소년보호 조직을 시설 내 처우로 이관하는 등 미래지향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이 문헌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실증적인 공식통계를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박상식(2006)은 과밀과 재범의 증가, 교정사고의 증가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보여주고 이러한 교정 상황에 직면하여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교정청 독립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총 직원의 50%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법무부 장관의 보조기관에 머무르다 보니 교정 국장이 2급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교정청장과 교정연수부장이 교정국장과 같은 직급이 되는 등 일관성 없는 직급체계로 인해 지휘통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감독기구로 4개의 지방교정청이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본청은 없는 기형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독립 외청으로 승격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재범률이 증가하고 강력범이 증가하며 범죄가 지능화, 흉포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 법원, 교정의 대등하고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교정청 독립을 위한 선결과제로 교정 공무원법의 제정<sup>3)</sup>과 교정시설의 전문화를 제시하였다.

박영규(2014)는 교정청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교정청 승격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교정본부와 범죄예방 정책국의 기능과 조직구조를 설명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법무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범죄예방정책국의 보호관찰과 소년보호 기능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 교정조직을 중심으로 논의를 떠나가고 있다. 교정청 독립을 위한 과제로서 ① 교정공무원법의 제정 ② 교정연구부서의 확충 ③ 교정시설의 소규모화, 전문화 ④ 보호국 업무의 통합 ⑤ 전문교정시설의 신설을 제시하였다.

3) 2005년 7월 법무부는 교정공무원법안(법무부공고제2005-48호)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은 교정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계급단계를 증설하며 특별채용과 특별승진 사유를 규정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을 기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이다.(박상식, 2006: 147)

권해수(2014)는 교정행정에 대한 논의, 세부적으로는 교정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형법학자들에 의해 교정청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규범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온 반면에 행정학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범죄사건의 증가, 재범의 증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등은 교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 법무부의 조직체계상의 한계로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소년보호 등의 업무가 병렬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횡적 협조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 ② 공무원 수 및 수용 인원 수를 고려할 때 중앙교정조직이 빈약하고 중간관리기능은 독자성이 없어 관리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③ 중앙교정조직의 정책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중앙과 지방교정행정의 유기적 연대가 약하고 역할배분이 모호하다. ④ 격무와 부정적 인식, 근무지 특성 등으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사기 및 자긍심이 크게 저하되어 있다. ⑤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보조기관이다 보니 인사와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부처 내 조율을 거쳐야 하는 등 독립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행 교정조직은 중간과 하부조직이 방대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기획, 감사 및 검찰, 교육 및 연구, 홍보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정청으로 독립을 하면 첫째, 조직 및 인력 운영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승진구조 개선 및 전문성 확보의 효과도 달성될 수 있다. 둘째, 교정예산의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며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예산은 매우 적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데 예산구성과 투입의 탄력성을 얻게 되면 범죄자의 교정교화라는 교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정과 보호는 재범 방지, 사회복귀, 사회 안전의 유지라는 공통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계를 넘어서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영근(2017a)은 교정조직의 발전과 독립에 대한 논문을 연이어서 발표하게 된다. 한국 교정제도의 발전방안으로 교정보호조직의 통합과 '교정보호청'의 신설을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교정병원 신설과 교정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제도 도입 등을 한국 교정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교정청 또는 교정보호청이라는 명칭에서 벗어나 '교정교화청'이라는 이름으로 청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이영근, 2017b).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주요 업무인 검찰인사들이 포진한 법무부 조직으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교정교화

기능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교정조직이 외청으로 독립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의 인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정교화 사업에 대한 인력 및 예산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정교화청'의 조직 모형까지도 제시하였다. 이외에 교정공무원법 제정과 교정연수원 설치, 교정교화시민위원회의 설치 등도 함께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교정조직의 독립 필요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첫째, 교정이 현재의 체제로는 수용관리와 처우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확대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교정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교정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신분보장이 인정되어야 하고, 셋째, 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을 위한 독립적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넷째,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범방지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서도 교정을 담당하는 조직의 독립기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III.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

아래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교정조직의 독립기관화에 대한 법안이 제기된 것은 네 차례이다. 2005년 문학진의 의원 등 29인의 국회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교정청 법안을 발의하였다. 급증하는 교정수요와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정국 체제가 교정청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로 제시되었다.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법무부 내의 타 기능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법무부의 기능이 축소되며, 교정직을 특정직으로 하면 다른 유사 직력에서도 특정직화를 요구하게 될 우려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용인원이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교정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 교정본부로 확대개편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8년이 지난 2013년에는 이명수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국회의원이 다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강력범죄

의 급증과 범죄수법의 지능화, 다양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데 현행 본부체제로는 효율적, 체계적 교정행정에 한계가 있어 외청으로의 독립기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와 함께 교정청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표 1>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의원발의 역사

	필요성	법안 내용	비고
문학진 의원 등 29인 (2005. 5)	1) 인력 및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 2) 급증하는 교정 수요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3) 교정행정의 전문성 및 독립성 구현 4) 교정공무원 자긍심 증진 5) 타 형사사법 기관과의 균형발전 6) 형사사법의 총체적 효율성 달성을 위한 독립적 기획능력과 전문성의 보장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1)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교정청 설치 2) 교정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교정청 법안 1)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교정청 설치 2) 교정연수원 설치 3) 교정위원회 설치 4) 교정직의 특정직 전환	●검토보고서 1) 법무부 내의 검찰, 보호관찰 등 타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독립을 할 경우 행정기능간 연계성 저하 2) 법무부 기구 및 기능축소 3) 교정수요 감소 4) 교정직을 특정직으로 하게 되면 검찰, 보호관찰 등 일반직 공무원들의 특정직 요구가 강화
이명수 의원 등 10인 (2013. 10)	1) 강력범죄 급증과 범죄수법의 지능화, 다양화에 대한 대처 2) 효율적, 체계적 교정행정의 한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1)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교정청 설치	●교정청 승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정성호 의원 (2017. 6)	1) 재범의 급증 2) 교정본부 체제로는 사회안전망 확립에 한계 3) 업무의 전문성 증진과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감이 높은 근무환경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1)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 2) 정부조직법 상 "행령"을 "교정"으로 변경 <sup>4)</sup>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1) 5년마다 기본계획 2) 의료지원과 정신건강지원 3) 주거안전지원 4) 퇴직공무원 취업지원 등	●검토보고서 1) 교정의 전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독립외청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2) 국회예산 정책처의 추정으로는 교정청을 설치운영할 경우 연 평균 1억 9,660만 원의 추가재정 소요 발생

이명수 의원 등 10인 (2017. 6)	1) 강력범죄 급증과 범죄수법의 다변화, 다양화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교정청 설치	3) "행형"을 "교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형 집행보다 수형자의 교정이 근본적 목표임을 상기시키는 입법적 효과를 기대 <sup>4)</sup>
	2) 교정수요 변화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 교정행정을 위해 청 독립이 필요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두 명의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교정청 독립을 논의하기 위한 장(場)을 다시 열었다. 두 의원 모두 강력범죄의 급증과 재범의 급증 등 범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기존의 행정체계는 비효율적이므로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교정청 독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교정업무는 일반 행정사무와는 달리 범죄자의 수용관리와 처우에 관한 실무경험과 학식이 필요하며, 교정행정 조직체계의 확대개편을 통한 전문적 교정행정으로 재범률을 줄이고 국민안전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2005년에 나왔던 검토보고서와는 달리 교정조직 독립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태었다. 더불어서 교정청으로 승격되더라도 예산은 연 평균 2억 원 이내라는 추정이 나와 예산 확대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켰다.

여러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교정조직의 확대, 승격과 함께 교정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교정공무원의 특정직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회 발의내용을 보면 2005년 문학진 의원의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교정공무원법에 대해서는 따로 발의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정성호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제안 이유를 보면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감 등이 수반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해서 ①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

고, 이를 위해 ②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③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sup>5)</sup>, ④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하고, ⑤ 복지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⑥ 퇴직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특히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직업적 자긍심과 조직충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정청 독립과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 두 법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IV. 교정환경의 변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

### 1. 교정조직의 현황

〈표 2〉 교정조직의 변천

구분	1948	1961	1980	1997	2007	2014	2017
중앙조직	본부	-	-	-	1	1	1
	국	1	1	1	1		
	심의관(정책단)	-	-	1	1	2	2
	과	6	3	7	6	9	7
소속기관	19	21	32	46	51	56	56
교정직원	3,938	2,840	7,185	12,033	14,296	15,973	15,871
수용인원(연평균)	22,278	29,180	48,755	54,408	46,313	50,128	57,298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2007년 교정국에서 교정본부로 개편된 교정조직은 2018년 현재 교정본부장, 2정책단, 8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지방교정청과 52개의 교정시설을 두고 있다. 2018년 현재 15,774명의 직원이 있고, 예산은 1조 5,536억 3,100만 원으로 법무부 예산의 39.6%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연평균 수용인원은 57,369명으로 2012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용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교정시설의 수도 증가하였지만 중앙 교정본부의 직원은 2018년 현재 103명에 불과해 정책기획이나 연구개발 등에 집

6) 자세한 교정공무원의 탈진감과 PTSD,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수정, 윤옥경(2004), 윤옥경(2006)을 참조할 것.

중할 인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해 권해수(2014)도 “중앙행정조직이 빈약하다 보니 정책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중간, 하부조직은 비대하지만 중앙조직은 독립적인 기획, 감찰, 교육 및 연구, 홍보기능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2007년을 기준으로 교정공무원이 1500여 명 증가할 동안에 수용인원은 1만여 명이 늘어난 것을 보면 직원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 1인당 평균 수용인원이 2007년에는 3.2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3.6명으로 증가하였다. 공식통계로 보면 숫자의 증가가 그리 크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업무량은 상당한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다. 사실 수용인원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공무원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교도관들의 직무충실도와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적절한 직원의 수는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무부 내부 보조기관의 지위로는 필요한 수만큼 직원 증원을 받기 위한 행안부와 기재부와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교정청 독립도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 2. 교정수요의 변화

#### 1) 수용인원의 증가

수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정원 과밀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급기야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뒤이어 수용자가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하는 판결도 내려졌다. 2018년 3월 13일 기준으로 현재 수용정원 47,820명에 54,369명이 수용되어 있어 수용률이 113.7%에 달하고 있다.

수용인원의 증가와 수용율의 증가는 교정행정에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수용자 1인당 면적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 간의 갈등과 싸움이 많아지고 수용자 관리의 어려움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수용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공장이나 직업훈련을 하던 곳을 수용거실로 만드는 경우가 생기고, 구치소와 교도소의 특성을 지키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의정부교도소는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미결수가 많아짐에 따라 구치소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아주 기본적인 구분수용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경비등급별로 차별화된

시설과 처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용 그 자체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화된 처우, 과학적 처우가 실질적 의미를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다른 한편 수용인원에 비해 직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번일 때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직무의 질을 떨어트리는 효과도 가진다. 이러한 근무의 질은 우수인재의 영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용인원의 증가와 직원의 부족은 총체적인 교정행정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그림 1〉 1일 평균 수용인원 변동추이



출처: 교정통계연보 2017, 53페이지

〈표 3〉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

연도	2007	2010	2013	2015	2017
수용률	107.5	103.4	104.9	115.6	113.7

수용인원 증가로 인한 교도소 과밀문제는 그 해결방안을 몇 년 내에 반드시 찾아야 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수용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받은 이상 수용밀도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수용밀도를 낮추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이다. 교도소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는 전략과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내보내는 출구전략이 있는데 특히 입구전략을 위해서는 교정행정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형사사법 단계의 모든 단계에서의 정책과 전략의 결과로 교도소로 들어오는 수용인원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과 기소, 법원의 법정구속 실패와 실형선고와 형량의 수준이 교도소로 들어오는 인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형사사법의 각 부분이 함께 문제해결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현재 교정본부에서는 과밀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정책과 교정시설 신설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집행력도 현재의 본부체제로는 역부족인 감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찰, 검찰, 법원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위해서도 교정본부의 지위는 확대 개편되어야 맞는 것이다.



## 지상강좌

교정학은 교화개선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교정학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 1. 형집행법 제42조에 규정된 접견의 중지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 ②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 ③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④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접견의 중지사유(형집행법 제42조-임의적 중지규정)

-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 2.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 3.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정답 ①

### 2. 현행법상 수용자의 서신수수권을 침해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미결수용자의 서신이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신을 검열하였다.
-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에 마약이 포함되어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교도관이 검열하였다.
- ③ 같은 시설 수용자 간의 서신을 교도관이 검열하였다.
- ④ 「형사소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어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였다.
- ⑤ 조직폭력사범이나 마약류사범의 서신을 교도관이 검열하였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동법 제84조 제3항).

정답 ②

### 3. 다음 현행법령상 전화통화와 관련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전화통화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수용자가 통화 중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전화통화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형집행법 제44조 제5항).

정답 ④

### 4. 다음 중 수용자가 외부에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가 가족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 ② 처우등급이 중(重)경미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다른 시설의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 ③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가족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 ④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가족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가 아닌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정답 ③

### 5. 다음 중 현행법령상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 ②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 ③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가족들과 접견하는 경우
- ④ 신체장애 및 정신지체 수용자가 가족들과 접견하는 경우

신체장애 및 정신지체 수용자가 가족들과 접견하는 경우는 현행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50조 제4항).
-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 ③ 개방처우급 및 개방시설 수용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October 2018 Vol. 509

## 교정본부장, 서울남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9월 17일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주요정책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와의 소통을 위해 직원 간담회를 주재하였으며 교정위원 간담회에서는 수용자 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심사

지난 8월 31일 서울남부구치소 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심사가 이루어졌다. 대상을 수상한 고려대학교 팀을 포함해 총 6개 팀은 오는 10월 26일 교정의 날 행사에서 법무부장관상과 상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정의 날 기념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교정본부장,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9월 19일 의왕시 소재 희망의 집과 명륜 보육원을 위문 방문하였다.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방문한 이번 행사에서는 시설아동을 위한 격려금과 생필품, 다과류 등의 격려물품이 전달됐다.

## 2018 교정통계연보 발간 및 배포

교정본부는 지난 9월 7일 2018년도 교정통계연보를 발간 및 배포하였다. 교정정책 수립과 교정 관련 연구에 필요한 통계를 현행화하고 자료를 보전하기 위해 발간된 교정통계연보는 총 700부가 전국의 교정기관 및 관계 단체에 배부되었으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2018년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2018년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1,021명의 출소에 정자와 342개 구인업체가 참여하였으며 현장면접,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상담과 창업 컨설팅 등이 이루어졌다.

## 주한미국대사 교정시설 방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10월 1일 천안교도소를 방문하였다. 해리스 대사는 국내 유일의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인 천안교도소에서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시설을 참관하였으며 자국민 수용자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리스 대사는 자국민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교정본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영문 도서를 기증하였다.

##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40일간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 게재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집행법	형집행법 시행령	형집행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정관련 용어 개선</li> <li>중증질환자에 대한 수용거절 근거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 처분 시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교도관이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실시</li> </ul>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활동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9월 18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로하였다. 이번 위문 활동은 아동복지 시설과 어려운 이웃에 나눔의 정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위문금을 전달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구치소 / 교도 변무관

####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유도 부문 우승 차지

서울구치소는 9월 14일 제 53회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 유도 부문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우승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열심히 훈련하여 얻은 값진 성과였다. 우승 소식을 전해들은 전 직원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했다.

###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실시

안양교도소는 9월 17일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자강 산업 등 6개 구인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3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였다. 출소 예정자 65명은 실질적인 취업을 위하여 상담 및 채용 면접을 받았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 무비콘서트 관람 행사 실시

수원구치소는 9월 11일 수용자 140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예술여행 찾아가는 무비콘서트' 관람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펼치는 문화소회활동의 일환이다. 수용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끌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 어린이집 가족운동회 개최로 연무관 개방

서울동부구치소는 9월 15일 인근지역에 위치한 푸른솔어린이집의 가족운동회 개최를 위하여 소 연무관을 개방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원아들과 가족들은 함께 줄다리기,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교정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만족해했다.

###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 실시

인천구치소는 8월 29일 문화가 있는 날에 주안CGV에서 영화를 관람하였다. 김정선 소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 직원은 "잠시나마 바쁜 일상을 잊고 직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친목 도모를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복중우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참관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9월 18일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 2명과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앞서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는 학생들이 형법에 대한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현장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참관을 신청했다. 이날 교수 및 학생들은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동영상 시청하고 사회복지과 대강당, 수용동 등을 참관하였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 오산시 진로진학박람회 참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9월 1일 오산시청에서 개최된 제1회 오산시 진로진학박람회에 참여하여 교정 공무원 직업체험을 실시하였다. 화성시 동부경찰서,



인천구치소

오산소방서 등 오산·화성 소재 학교 및 기관 등 총 66개 기관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오산·화성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학설명,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교정공무원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 추석맞이 사랑나눔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7~21일 독거 노인, 저소득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의정부교도소 전 직원들이 따뜻한 정성을 모아 좋은 이웃 센터 등 3개 시설과 8개 가정을 직접 방문, 쌀과 라면, 생활비 등 200만 원 상당의 성금 및 위문품을 지원하였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 찾아가는 영화 서비스 실시

여주교도소는 9월 7일 구내 대강당에서 기결 수용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찾아가는 영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행사는 수용자 내면의 인성 변화와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함께하는 사랑방 및 CBS방송 시네마에서 팝콘 500봉지를 후원하여 의미를 더했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 청소년 현장직업체험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9월 21일 마포중학교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현장직업체험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구내 참관과 홍보영상 시청, 현직 직원과의 대화시간 등을 통해 교정공무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참관행사를 실시해 친근한 교정공무원 이미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원주교도소

## NEWS

### 춘천교도소 / 교사 신창훈

#### 보안과 상황대기실 개선공사 완료

춘천교도소는 보안과 상황대기실(직원침실) 개선 공사를 7월 17일부터 진행, 9월 12일에 완료하였다. 상황대기실을 1인 1실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온전한 휴식시간을 제공,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춘천교도소 직원들은 근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기관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금·품 전달

원주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0일 전 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위문금·품을 원주시 사회복지시설 '안나의 집'과 '노숙인 쉼터'에 전달하였다. 원주교도소는 2016년부터 '안나의 집'과 '노숙인 쉼터'와 인연을 맺고 명절 때마다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허광명

####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실천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은 추석을 맞아 9월 20일 청사 청소원에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이어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하여 정성껏 마련한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9월 21일에는 결연가정에 후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대구교도소는 9월 19일 2018년 제3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역 유망기업체인 ㈜삼우무역, 우창케이칼 등 16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가했다. 취업희망 수용자 38명은 구인업체와의 1대 1면접을 통해 채용의뢰서를 작성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취업상담, 신용회복 등의 상담 서비스를 받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

###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영아소화재화원 등 시내 사회복지

###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 청렴 캠페인 실시

강릉교도소는 9월 17일 청렴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직원 개개인이 한 달여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키운 청렴화분(다육이)을 일반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청렴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직자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및 소방훈련 실시

영월교도소는 9월 11일 대테러 대비 유관기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8087부대 3대대, 영월경찰서, 영월소방서 등 65명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 훈련은 적 침투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직원들이 사전에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관·군·경 통합

지시설 4곳을 방문하여 꾸준히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였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김남규

####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들은 9월 18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는 2015년부터 매월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들이 관내 소재한 청송군 진보면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및 일상용품을 구입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시작된 행사이다.

### 창원교도소 / 교도 박혜빈

#### '황금돌섬 보라미 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창원교도소에서는 직원 봉사단체 '황금돌섬 보라미 봉사단'을 결성하여 9월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황금돌섬 보라미 봉사단 10명은 21일 소망원(복면 소재)을 방문, 시설 내의 환경정리를 하였다. 또한 소망원장을 통해 소망원의 고충을 듣고 앞으로도 실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 청렴 캠페인 실시

부산교도소는 9월 14일 부산김해경전철 평강역사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테러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김관순

#### 사랑의 손잡기 결연가정에 성금 및 생필품 전달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추석을 맞아 9월 18일 사랑의 손잡기 결연가정을 방문, 전 직원의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사랑의 손잡기 대상자인 이 모 씨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 주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심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주어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출입구에서 대저1동 주민들과 함께 경전철 이용승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 및 주민들은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 부산교도소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출퇴근 시민들에게 청렴한 공직문화를 알렸다.

###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포항교도소는 9월 2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행사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

###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 위문 행사 실시

진주교도소는 9월 20일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이웃과 더불어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10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나누미봉사단(진주교도소 전 직원들로 구성)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 100만 원을 대곡면사무소에 전달하였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 추석맞이 사랑나눔 행사 실시

대구구치소는 9월 20일부터 이틀간 추석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곳곳을 방문, 직원과 교정위원의 정성을 담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인 대구SOS어린이마을에 성금을, 화원중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대구구치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추석을 앞두고 9월 20일 사회복지시설 '평강의 집'과 '은혜의 집', 한부모가정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시설 내 농장 정리를 하였다. 이번 위문·봉사활동은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재원으로 지원되었다. 또한 제과제빵 직업훈련을 받는 수용자가 재능기부를 통해 만든 빵이 전달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

###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 추석명절 소외된 이웃 위문

안동교도소는 9월 20일 추석을 맞이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추진되었다. 인근 풍산읍 마을(기관소재) 불우이웃 3명에게 30만 원, 상리3리 노인회관에 20만 원, 그리고 창원소망원에 20만 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하였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헌

#### 진보중학교 교정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9월 12일 진보중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성적 우수 학생 1명과 효행 학생 1명에

게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하였다. 한편, 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6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매달 5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연

#### 추석맞이 사랑나눔 실천

김천소년교도소는 9월 17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즐거운 집, 베다니 성화원, 김천행복한요양원을 방문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동희 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우성

#### 주왕산 청렴 캠페인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 직원들은 9월 21일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주왕산 절골 계곡, 대천사 등 주변을 둘러보며 환경 정리를 실시하는 등 청렴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서수원 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왕산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일깨우고,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열린 교정행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울산구치소 / 교사 이지수

#### 옥현중학교 장학금 전달

울산구치소는 9월 21일 옥현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장학금 전달식은 안정적인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열린 교정을 통한 교정행정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 청렴 토론 및 청렴 韓 세상 홍보 활동 실시

경주교도소는 9월 12일 청렴 토론 및 청렴 韓 세상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청렴 분위기 조성 및 청렴도 향상 방안,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교도소 방문 민원인에 대한 청렴 韓 세상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 추석맞이 가족만남의 날 행사 실시

통영구치소는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14일과 17일 구치소 내 강당에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이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채완식 소장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협

#### 밀양시 보건소와 업무협약 체결

밀양구치소는 9월 13일 밀양구치소 소회의실에서 '밀양시 보건소와 밀양구치소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밀양구치소 소장 및 밀양시보건소 소장을 포함 관계자 9명이 참석하였다. 소 내에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유도한다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이다.

###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 달팽이봉사단 우수학생 장학금 전달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9월 11일 사벌초등학교 3명, 상주중학교 3명 등 총 6명에게 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대상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성적우수 학생, 선행 또는 효행 학생,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

## NEWS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남욱

#### 제8회 법무부장관기 야구대회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9월 8일 대전광역시 덕암야구장에서 제8회 법무부장관기 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치열한 지역예선을 뚫고 올라 온 전국 8개 교정기관이 법무부장관기 대회의 우승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각 기관이 명승부를 펼친 끝에 우승은 대전교도소가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부산구치소, 안양교도소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였다.

###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위원 헌장 방문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9명은 8월 21일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교정시설의 전반적인 수용처우, 특히 조사·징벌에 대한 실태 파악과 교정행정 이해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정문자 상임위원 등은 노인행복센터·직조 공장·혈액투석실·보호실 등을 둘러보고 교도관의 직무상 애로사항을 경청하였으며 특히 폭염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정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충주교도소 / 교사 김재덕

#### '찾아가는 무비 콘서트' 개최

충주교도소는 9월 7일 사회복지과 대강당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비 콘서트'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의 상영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영화 해설과 라이브 음악 연주가 진행되어 수용자들이 정서를 순화하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천안교도소 / 교도 김우겸

#### 국외훈련 교육훈련생 보고회 실시

천안교도소는 9월 6일 국외훈련 교육훈련생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교육훈련생인 정재근 교위는 "캐

나다는 다양한 성폭력·성범죄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성폭행범의 성향을 개선하여 재범을 낮추어왔다"며 "한국은 캐나다와 환경이 다르기에 기관에서 시작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아동성폭력 사범 개선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 수용자 행복콘서트 공연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9월 10일 수용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행복콘서트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 공연은 C.T.팝스 오케스트라의 흥겨운 음악으로 수용자의 건전한 인성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C.T.팝스 오케스트라는 대중가요 및 가곡 등 다양한 음악을 공연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공연자는 직접 사회를 보며 수용자와 같이 호흡하는 시간을 보냈다.

###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 추석맞이 사랑나눔 실천

공주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0일 공주교도소 주변에 있는 불우이웃을 찾아 위문하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 직원이 마련한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설맞이 사랑나눔 운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방문, 공주교도소 봉사동호회에서 정성껏 모은 성금을 전달하였다.

###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

#### 한태한 소장 취임

제17대 충주구치소 한태한 소장이 8월 27일 취임을 하였다. 한태한 소장은 2008년 교정관에 임용된 후 대구구치소 수용기록과장, 법무부 교정기획과 서기관,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한태한 소장은 "수용자에게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정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홍성교도소 직원들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9월 17일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결연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사랑 샘'을 방문하여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사랑 샘'은 "최근 기부 문화가 위축되어 어려운 실정인데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주는 홍성교도소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 지진대응 및 소방 훈련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9월 12일 지진대응 및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소방훈련은 자위소방대 직원 35명과 수용자 111명이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진행되었다. 천안개방교도소는 평소 교육을 통해 교도소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 방호 및 재난대비 시설을 점검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9월 6일 방호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곽 펜스 및 참호 등 방호시설을 점검하고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산물 및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넝쿨제거 및 잡목 제거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로를 정비하고 주변 시설물을 점검하였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 외부강사 초빙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9월 12일 청사 교육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송희성 강사를 초빙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이 사회내에서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차별되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주교도소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대전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윤규

####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9월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경식 청장과 직원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밀알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애육원 2곳을 방문하여 전 직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였다. 광주지방교정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광주교도소 / 교사 이병석

#### 생명나눔 헌혈 행사 실시

광주교도소는 9월 3일 보안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2018년도 3분기 헌혈의 날 행사를 통한 사랑·희생·봉사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다. 소는 매년 분기별로 '헌혈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혈액 수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헌혈약정 단체에 가입하여 여러 기관들과 지속적인 '생명 나눔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 전주교도소 / 교위 김도훈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전주교도소는 9월 14일 출소예정 수용자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신규 참여업체인 한울 배터리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였다. 전주교도소는 "이번 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취업면접교육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순천교도소 / 교사 최창래

####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순천교도소는 9월 13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문권점 부이사관

을 초청해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가족'이라는 주제로 실시되었다. 한편 최국진 소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목포교도소 / 교도 박경용

####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목포교도소는 추석을 맞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9월 18일부터 이틀간 위문활동을 실시하였다. 무안군 일로읍 소재의 소전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마을노인회, 사랑나눔가정 등 6곳을 방문,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사랑나눔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 외부강사 초빙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군산교도소는 8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야 인권강사인 김순훈 강사를 초빙해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되었다. 장애·장애인에 대한 정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보장의 특수성, 시설 이용인 인권보장 권리항목 등을 교육하여 장애에 관한 직원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제주교도소는 9월 3일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참여 직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부단한 자정의 노력을 다짐하였다.

###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장흥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9월 18일 정남진그룹 홈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맞이 선물을 전달하였다. 한편 보라미 봉사단은 매달 셋째주 수요일을 봉사하는 날로 정하고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무료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정남진 및 탐진그룹홈을 방문하여 미취학 아동 학업 지도 및 청소년 대상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 '추석명절 나눔 봉사' 실시

해남교도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9월 17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인 해남등대원을 방문하여 후원금·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해남교도소 전 직원으로 구성된 해남명절봉사단은 9월 20일까지 인근 마을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보일러 및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 추석맞이 사랑나눔 실시

정읍교도소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소외된 이웃에 과일 상자 및 생필품, 생활자금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9월 28일에는 정읍시 소성면의 초·중등학교 학생 중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을 추천 받아 각 2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사랑 나눔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150만 원 상당의 위문 금품을 전달하였다.

## NEWS



광주지방교정청



목포교도소



정읍교도소

## 교정공제회



### 모범교정공제회원 제3차 현장견학 실시

교정공제회는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매년 모범 교정공제회원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각 지부에서 추천받은 모범 교정공제회원 38명과 동반가족 38명 등 총 76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제3차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한편 올해 제1차 현장견학과 제2차 현장견학은 4월과 5월에 각각 실시하였고, 제4차 현장견학은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교정공제회는 공제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유익하고 알찬 현장견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국군교도소



### 제1회 이천시 장애인 생활 배드민턴 대회 봉사활동 참여

국군교도소는 9월 15일 제1회 이천시 장애인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장애를 극복해나가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도소 소장 등 20여 명의 장병들은 지체, 발달장애인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선수 인솔, 휠체어 착용 보조, 경기지원 및 환경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 모범공무원인을 소개합니다

여주교도소  
교위 이견철



서울

#### 재범 방지 및 철저한 업무 수행

2004년부터 총무과 수용기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호자가 없는 형집행정지 수용자,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재범 방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는 분류심사와 운영지원 담당자로서 취사장 및 운영지원부 선정에 있어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였다. 현재는 보안과에서 야간 수용자 입·출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절차 안내를 함으로써 수용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구구치소  
교위 정승호



대구

#### 교정사고 방지에 적극 기여

평소 직원들이 기피하는 야간 근무를 지원하여 근무하고, 수용자 개인별 특성과 신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동정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자가 본의 아니게 발생시킬 수 있는 교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또한 야간 기동순찰 근무를 하면서 신입수용자 입소 시 적극적으로 의류 및 신체를 검사하여 부정 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동조치 및 외부병원 후송으로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공주교도소  
교위 황승익



대전

#### 수용자 심성 순화 및 재사회화에 기여

사회복지과 불교 담당근무자로서 불교법회와 수용자 상담을 통하여 수용자의 심성순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석방전 교육 및 취창업 교육으로 수용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부터는 석방 전교육을 시행하면서 400여 명을 교육 수료시켰으며, 기초생활상담과 취창업교육을 담당하여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순천교도소  
교사 김용성



광주

#### 급식 관리 및 서무업무 철저

복지과 직원식당 담당자로서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부식물 검수 및 조리원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급식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서무업무를 하면서 관련 법규 및 서무업무 편람 등을 사전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교정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업무추진 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직 내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화합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월간 <교정> 10월호 교정스타그램에서는 동료 혹은 가족들과 같은 마음을 쌓아 올리는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화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감상해 보세요.

11:11 100%

자랑스러운 우리 동아리



❤️ Q ▾

**교사 최희병** 인천구치소

다른 오래된 동호회처럼 실력들이 출중하지는 않지만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만든 인천구치소 농구동호회 'TEAM JAGUAR'입니다. 구치소 내에 아직 농구코트가 없어 근처 공원이나 대학교를 전전하며 모임을 가지고 있기에 참석해 주는 직원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11:11 100%

회의는 진지하게



❤️ Q ▾

**교도 이유성** 진주교도소

총무과장님 등 직원들이 모여 커피 한잔을 곁들이며 직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 느껴지시나요?

11:11 100%

청소도 협력으로



❤️ Q ▾

**교위 김기년** 김천교도소

소 내 행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모여 외정문 등 교도소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11:11 100%

우리는 가족 밴드



❤️ Q ▾

**운전주사보 은종국** 여주교도소

음악과 악기를 좋아하는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특별 연주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11:11 100%

뭉치면 다함께



❤️ Q ▾

**교위 권오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희망전도사로 거듭나는 화성봉사대원들입니다. 함께하며 노력하는 이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11:11 100%

정읍교도소를 위하여!



❤️ Q ▾

**교감 김기수** 정읍교도소

정읍교도소 보안행정반이 119회식(매월 1회 1차에서 1가지 술을 마시고 9시까지 집으로 귀가한다는 의미)을 통해 단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 교정 스타그램에 참여해주세요.

교정 스타그램은 <교정>을 아끼는 교정공무원과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매 호 정해진 주제에 어울리는 사진과 짧은 문구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문화상품권(1만 원 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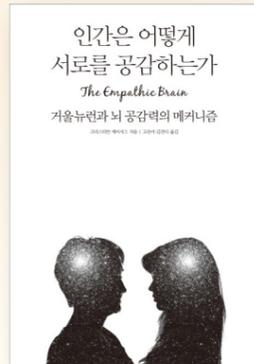
'11월의 테마 컬러는 'NAVY', 주제는 '정의(Justice)'입니다.'

'정의'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MB 이상)과 시연을 보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문의: 02-2110-3461) / 소속, 직급, 이름, 휴대폰 번호 必

## '공감' 능력을 키워 주는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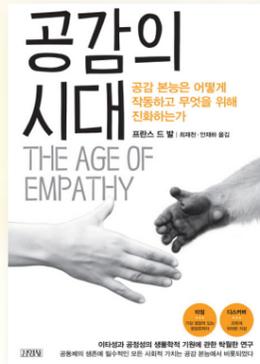
누군가와 화합하며 조화로운 삶을 펼치려면, 중요한 덕목들이 있다. '공감'은 그중에서도 제일 앞에 두어야 하는 가치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의 결을 따라갈 수 있을 때 '함께'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되는 까닭이다. 여기, 그 '공감' 능력에 대해 성찰하며 정의를 되짚어볼 수 있는 책들이 있다.



###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는가

크리스티안 케이스스 지음 / 고은미, 김잔디 역 / 바다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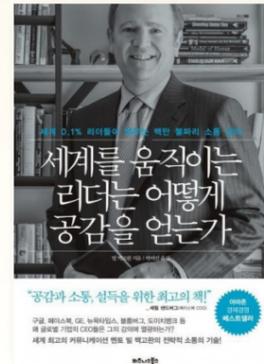
모방의 토대가 되는 '거울뉴런'을 공감과 정서 연구 분야로 확장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 크리스티안 케이스스가 쓴 '공감'에 대한 신경과학적 해설서다. 저자는 우리가 거울뉴런체계에 의해 자신의 행동, 정서, 감각을 대리활성화함으로써 타인의 행동, 정서, 감각을 공유하며,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 뇌 안에 공통 배선된 이 '공유회로'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협력, 언어, 학습, 윤리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근본원리를 밝힌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뇌가 얼마나 다르고 왜 남자가 전쟁에 더 적합한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자폐증 환자와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공유 회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새롭고 놀라운 통찰을 들려준다.



### 공감의 시대

프랑스 드 발 지음 / 안재하, 최재천 역 / 김영사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이 썼다. 원숭이와 침팬지, 고릴라 등의 영장류 동물을 비롯해 고양이, 늑대, 돌고래, 새, 코끼리 등 수많은 동물들에게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공감 행동을 통해 '공감'이 진화적으로 뿌리가 깊은 동물적 본능임을 밝힌다. 또한 그로부터 비롯된 이타성과 공정성의 발현은 결국 종의 생존을 위한 자연선택의 결과임을 입증한다. 저자는 공감이 생존에 기여하는 진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정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이를 기반 삼아 사회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때 탐욕의 시대와 작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밑바탕에 깔린 협동과 이타성, 유대의식과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는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

빌 맥코완 지음 / 박여진 역 / 비즈니스북스

저자는 미국을 대표하는 방송사인 ABC, CBS, FOX 등에서 15년 동안 기자와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700여 명이 넘는 명사들을 취재한, 인터뷰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사람이다. 세계 최고의 리더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도 유명한 저자는 원하는 것을 얻고 인간관계를 움직일 수 있는 소통의 노하우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소통에 대해 기본 지식은 물론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과 공감을 얻는 말하기를 위해 어떤 점들을 배우고 보완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알려준다. 저자가 경험한 다양한 사례와 명쾌한 조언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는 방침들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돼 있다.

# 아빠! 어디가?

〈월간〉 교정에 게재되는 '아빠! 어디가?'는 교정인 여러분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아이와 함께 교육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언젠가 아이와 가보고 싶었던 곳을 추천해 신청해주셔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을 선물할 '아빠! 어디가?'. 교정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빠! 어디가?' 신청

correct2015@naver.com (문의 : 02-2110-3461)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제6차 OECD세계포럼

# 제6차 OECD 세계포럼

## 미래의 웰빙

• 디지털화와 웰빙 • 복잡한 세상에서의 거버넌스 • 기업의 역할과 웰빙

전 세계 100여 개국, 1,500여 명의  
국제기구, 각국 정상급 인사,  
노벨상 수상자, 시민단체, 기업 등의  
관계자가 함께하는  
제6차 OECD세계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8년 11월 27일~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 ■ 참가 대상자

-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정책 입안자 및 결정자
-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의 연구자
- 국제기구, 언론, 시민단체, 기업 등의 주요 인사

### ■ 참가신청 및 등록

- 제6차 OECD세계포럼은 초청에 의해서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oecd-6wf.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연사

김동연 Kim Dong-yeon	제6차 OECD세계포럼 준비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You Young-mi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신욱 Kang Shin-wook	통계청장
반기문 Ban Ki-moon	전 UN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오후드 빈트 칼판 알 로우미 Ohood bint Khalfan al Roumi	아랍에미리트 행정부 장관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1년 노벨 경제학상
라비 칸부르 Ravi Kanbur	코넬대학교 세계학·경제학 교수
코트니 오도넬 Courtney O'Donnell	에어비앤비 전략기획대표
데이비드 필링 David Pilling	Financial Times 아프리카 편집장, 작가
줄리아 홉스봄 Julia Hobsbawm	'과부하 시대의 생존과 번영, 저자
라하프 하프쉬 Rahaf Harfoush	커뮤니케이션 전략가 및 디지털 인류학자
크리스틴 피터슨 Christine Peterson	미래학자, 나노학자, Foresight 연구소 공동 설립자

### ■ 주요 프로그램

DAY 1) 2018년 11월 27일(화)		
10:30~11:00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책임감 있는 세상	기조연설
11:30~13:00	미래에 펼쳐질 삶은 어떠한가?	전체회의
13:15~14:00	경제성과와 사회 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 전문가 그룹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14:30~15:00	디지털화의 전망과 적응	기조연설
15:00~16:30	디지털화와 웰빙	전체회의
DAY 2) 2018년 11월 28일(수)		
09:00~09:30	정부와 사회 간 신뢰회복	기조연설
09:30~11:00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과 거버넌스	전체회의
13:45~14:30	노벨수상자(경제학상)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와 데이비드 클락 뉴질랜드 보건부 장관의 대담	대 담
14:30~16:00	기업의 목표로서 웰빙과 포용적 성장	전체회의
DAY 3) 2018년 11월 29일(목)		
09:00~09:30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거버넌스	기조연설
09:30~11:00	발전을 위한 향후계획	전체회의
13:15~13:45	글로벌 개발전망	기자회견
13:45~14:30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베라송웨 사무총장과 남아공 경제개발부 에브리함 파벨 장관의 대담	대 담
14:30~16:00	미래웰빙 계획	전체회의
16:00~16:30	미래의 웰빙을 준비하며	폐막연설

### ■ 부대 행사

- OECD세계포럼 전시회, 부대회의, 양·다자회담 등

행사문의 Tel. 042-489-2924 Email. oecd2018@korea.kr  
등록문의 Tel. 02-6245-6339 Email. oecdfw2018\_reg@intercom.co.kr